

KIEP

지역경제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10년 6월 8일

ISSN 1976-0507 Vol. 4 No. 26

제2차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의
내용과 시사점

KIEP 1990-2010

박 월 라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위원 (wlpark@kiep.go.kr, Tel; 3460-1037)
나 수 업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syna@kiep.go.kr, Tel; 3460-1072)

- ▣ 지난 5월 24~25일 미국과 중국은 베이징에서 제2차 전략 및 경제 대화(S&ED)를 개최, 양국 및 세계 경제 현안, 안보,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

 - 전략 트랙에서 총 26개 합의사항을 도출했으며,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에코파트너십 공동사무국 개설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았음.
 - 경제 트랙에서는 경제성장방식 전환과 구조조정,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보호주의 배격, 금융시스템 건전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양국 및 세계 경제 현안을 논의했으며, 위안화 절상,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정부조달 등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보류 혹은 추후 논의하기로 함.
- ▣ 금후로도 미국과 중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및 세계 경제, 글로벌·지역 이슈 등을 둘러싸고 갈등과 균형, 협력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율해나갈 것임.

 - 경제적, 전략적으로 양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주요 이슈에 대한 양국의 입장과 전략을 명확히 이해하고, 한국의 현실적 위상과 국익에 부합하는 대응을 모색해야 함.
 - 특히 천안함사태와 북핵문제, 위안화 절상 문제 등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상이하면서 우리의 국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 한·중 간에도 미·중 S&ED와 같은 최고위급 대화채널을 가동시킬 필요가 있음.

 - 밀접한 경제관계에 비해 전략분야에서의 협력이 미흡한 한·중 간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비전을 공유하고, 양국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메커니즘 작동이 중요함.
 - 이러한 최고위급 전략대화의 정례화는 조만간 시작될 한·중 FTA 협상의 순조로운 진행과 성과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제2차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 개최

■ 제2차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이하 미·중 S&ED: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가 2010년 5월 24~25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렸음.

- 미·중 S&ED는 경제는 물론 정치, 안보, 글로벌 이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기존의 전략경제대화(SED)¹⁾와 고위급대화(SD)²⁾를 합쳐 대화의 레벨과 의제를 격상·확대시킨 것으로, 2009년 7월 27~28일 워싱턴에서 제1차 대화를 개최한 바 있음.

-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양국 정부의 외교안보 및 경제 부처의 최고위급 인사가 대거 참석하였음.

○ 미국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게리 로크 상무장관,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한 200명 내외의 고위관리로 구성된 사상 최대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함.³⁾

○ 중국 측에서도 왕치산 부총리,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비롯하여 주요 부처의 수장들과 고위관원들이 참석함.

■ 미·중 S&ED는 전략 트랙(Strategic track)과 경제 트랙(Economic track)으로 나뉘어 진행됨.

- 클린턴 국무장관과 다이빙궈 국무위원 공동주재로 진행된 전략 트랙에서는 에너지 및 환경, 기후변화, UN 평화유지활동, 반테러 등을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가 다루어졌음.

○ 천안함 침몰사태로 야기된 한반도문제에서 양국의 역할에 관한 논의도 심도 있게 다루어진 것으로 알려짐.

- 경제 트랙에서는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왕치산 부총리 주재로 양국간 무역 및 투자 관계 심화, 균형성장, 개방적이고 규범화된 금융시스템 구축,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에 관한 이슈들이 논의됨.

1) 미·중 양국은 다양한 경제관계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정부간 고위급 경제협의체로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전략경제대화(SED)를 유지해왔음.

2) 미·중 양국이 정치안보분야 협의를 위해 2005년부터 매년 1회 개최해온 차관급 대화임.

3) WS(2010. 5. 24).

2. 주요 의제 및 논의내용

가. 전략 트랙⁴⁾

■ 미·중 양국은 전략 트랙에서 7건의 협력 및 양해각서와 1건의 공동성명을 포함, 총 26개 항목의 합의사항을 도출함.

- 양국은 녹색협력동반자 실행계획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비롯해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UN 평화유지활동, 반테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음.

표 1. 제2차 미·중 S&ED 전략 트랙 주요 합의내용

협력, 양해각서 및 공동성명	기타 합의사항
- AP1000 원자로(개량형 가압경수로) 핵안전 협력각서 체결 - 미·중 셰일가스(shale gas)분야 협력을 위한 TF 실행계획 서명 - 녹색협력동반자(Eco 파트너십) 실행계획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공동사무국 개설에 합의 - 물류보안(supply chain security)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전염병 발생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 체결 - '미·중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관련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촉진 - 양국간 '에너지 및 환경 협력 10개년 계획'의 틀 내에서 6개 우선협력분야(클린에너지, 수질개선, 대기오염 방지, 습지보존 등)를 선정, 이와 관련된 7개 항목의 행동계획을 공표하고 양국이 공식 홈페이지 개설 - 에너지안보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제 에너지시장 안정화, 에너지공급 보장,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등 관련 분야에서 협력 강화	- 2010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포럼, 제5차 양국 에너지 정책대화, 제10차 석유 및 가스산업 포럼 개최 - 재생가능에너지, 바이오연료 관련 협력회의 개최 - 열병합발전, 바이오 항공연료, 스마트그리드 표준 관련 양국 기업 간 협력 지원 합의 - 원자력 및 방사능 물질의 밀매 방지 협력 강화 - 양국간 제3차 불법 벌목 및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포럼을 2010년 내 개최 - 워싱턴 소재 미 국립수목원 내 'Chinese garden' 건립을 위한 논의 지속 - 인권문제 협력을 위한 논의 지속 - 부정부패 및 테러 방지를 위한 양국간 협력 확대, 2010년 중 제8차 미·중 테러 방지 협의회 개최 -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 UN 평화유지활동 및 개혁에 관한 협의 및 협력 추진 - 해양 수색·구조 관련 교류 및 훈련 프로그램 조직 운영에 합의 - 2009년 11월 합의한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력각서 이행절차의 일환으로 6월 중 관련 회의 개최

4) 전략 트랙의 논의내용은 주로 미 국무부가 발표한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2010 Outcomes of the Strategic Track"에 의거하여 정리한 것임.

■ 한반도 문제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천안함 침몰사태에 관한 한국 측 조사결과와 대북제재 결정을 지지하며, 중국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중국의 다이빙귀 국무위원은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라는 기본원칙에 입각, 냉정하고 적절하게 이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사태의 확산을 피해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함.

나. 경제 트랙⁵⁾

■ 무역 및 투자 관계 강화

- 양국간 무역 및 투자 관계의 강화가 양국 경제관계의 최우선과제의 하나임을 공감하고, 일부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어냈으며, 향후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함.
- 중국은 '자주혁신정책(innovation policies)' 이 비차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시장경쟁, 기술이전에 대한 정부개입 금지 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함.⁶⁾
- 양국간 혁신정책 전문가 및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혁신정책 추진에 반영하기로 함.
- 중국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위한 개선사항을 명시한 보고서를 2010년 7월까지 제출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조달정책을 보장하기로 약속함.
- 양국은 무역 및 투자 개방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함.
- 양국은 미국산 콩의 대중 수출 시(2009년 기준 90억 달러) 검역절차 간소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중국은 서비스, 첨단기술 및 에너지 절약 제품 등의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진입장벽을 축소해나가기로 약속함.

5) 경제 트랙의 논의내용은 주로 미 재무부가 발표한 "Second Meeting of the US-China Strategic & Economic Dialogue Fact Sheet"에 의거하고, 중국 측 보도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6) 중국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정부조달품 구매 시 국산설비 의무비율 규제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개발을 장려하는 '자주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미국은 이러한 정책이 미국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으며, 이번에 중국이 미국 측 요구를 일부 수용, 개선의지를 표명한 것임.

■ 경제회복 강화와 균형성장 촉진

- 양국은 세계경제가 아직 부분적으로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회복을 강화하고 균형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 미국은 재정적자 축소와 저축 확대를 위한 정책을, 중국은 소비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하기로 약속함.
- 미국은 환율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이는 글로벌 세계경제의 균형성장에 필수요건이라는 입장을 제시한 데 대해, 중국은 위안화 환율 결정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개혁해나갈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함.⁷⁾

■ 탄력적이고 개방적인 금융시스템 구축

- 양국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보다 탄력적이고 시장지향적인 금융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양국 금융시스템의 규범화와 감독 강화, 금융서비스분야 개방, 국제금융시장 발전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함.
- 양국은 특히 농촌지역의 금융서비스 확대와 금융시장 감독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중국은 금융시장 개방을 위해 QFII(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의 '주가지수선물' 시장 투자를 허용하기로 함.

■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강화

- 양국은 세계경제 회복 가속화, 고용창출,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 무역 및 투자 개방, 빈곤 해소, 국제금융시스템 건전화 등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공동대처하기로 합의함.

■ 기타 분야에서 양자간 협력 확대

- 양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확대, 공정노동기준법 정착, 노동자 보호, 돈세탁 및 테러지원 방지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함.

7) 중국은 위안화 환율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을 제시하지 않음.

3. 미·중 경제관계 현안

가. 무역 및 투자 현황

■ 무역

-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상대국이며, 수입에서는 일본, 한국, 대만에 이어 4위를 기록하는 중요한 교역상대국임.
- 2009년 기준 중국의 대미 수출입규모는 각각 2,207억 달러와 774억 달러이며, 중국의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은 각각 18.4%, 7.7%임.
- 미국 입장에서 보면, 2009년 기준 중국은 미국의 세 번째 수출상대국이자 최대 수입상대국으로, 미국의 전체 수출 및 수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오히려 상승함.
- 2009년 미국의 대중 수출은 700억 달러로 미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5.5%에서 6.6%로 상승하였으며, 미국의 대중 수입 비중 역시 2008년 16.1%에서 2009년 19%로 늘어남.

표 2. 미국의 대중 무역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수출	731	693	724	819	904	1,037	1,163	1,301	1,057
대중 수출	19 (2.6)	22 (3.2)	28 (3.9)	35 (4.2)	42 (4.6)	55 (5.3)	63 (5.4)	72 (5.5)	70 (6.6)
순위	9	7	6	5	4	4	3	3	3
총수입	1,142	1,164	1,259	1,471	1,671	1,855	1,954	2,100	1,558
대중 수입	102 (8.9)	125 (10.7)	152 (12.1)	197 (13.4)	244 (14.6)	288 (15.5)	322 (16.5)	338 (16.1)	296 (19.0)
순위	4	3	2	2	2	2	1	1	1

주: () 안은 총수출입에서 대중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US Census Bureau.

■ 투자

- 양국간 직접투자규모는 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투자 누계는 2008년 기준

457억 달러(미국 총해외직접투자의 1.5%)로 중국은 미국의 18번째 투자대상국임.

- 미국 대중 투자의 47%가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제조업 투자의 약 60%는 컴퓨터, 전자제품 및 화학제품이 차지함.
-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2008년 해외투자 통계공보에 따르면, 2008년 누계 기준 중국의 대미 투자액은 23.9억 달러로 미국은 중국의 7번째 투자대상국임.

표 3.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주요 상대국

(단위: 억 달러, %)

순위	국가	투자금액	비중
1	홍콩	1,158.45	63.0
2	케이맨군도	203.27	11.04
3	버지니아군도	104.77	5.70
4	호주	33.55	1.82
5	싱가포르	33.35	1.81
6	남아프리카공화국	30.48	1.67
7	미국	23.9	1.30
8	러시아	18.38	1.00
9	마카오	15.61	0.85
10	카자흐스탄	14.02	0.76

주: 누계 기준,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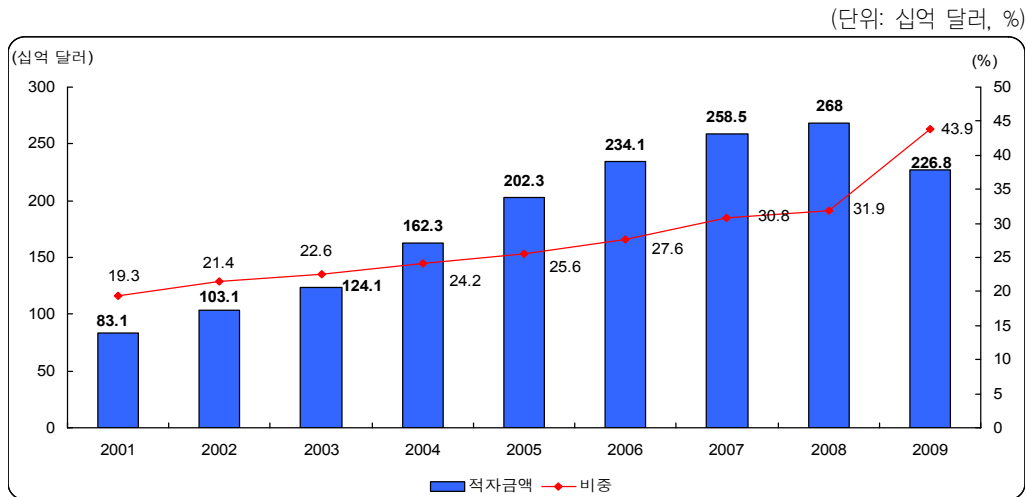
자료: 중국 상무부, 「2008 Statistical Bulletin of Chin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나. 미·중 통상 현안

■ 무역불균형 심화

-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2002년 1,000억 달러를 넘어선 지 3년 만에 2,000억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급증하였으며, 중국은 2001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 대상국으로 부상함.
- 특히 2009년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 규모가 2008년에 비해 감소(8,403억 달러 → 5,170억 달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 무역적자가 전체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역대 최고수준으로 확대됨(31.9% → 43.9%).

그림 1.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추이



자료: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 양국간 무역불균형 심화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 압력 및 양국간 통상분쟁 확대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함.
- 미국은 대중 무역적자 심화로 실업이 확대되고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개선과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함.
-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에 있기 때문에 이를 전적으로 대중 무역적자 탓으로 돌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임.

■ 미국의 위안화 절상압력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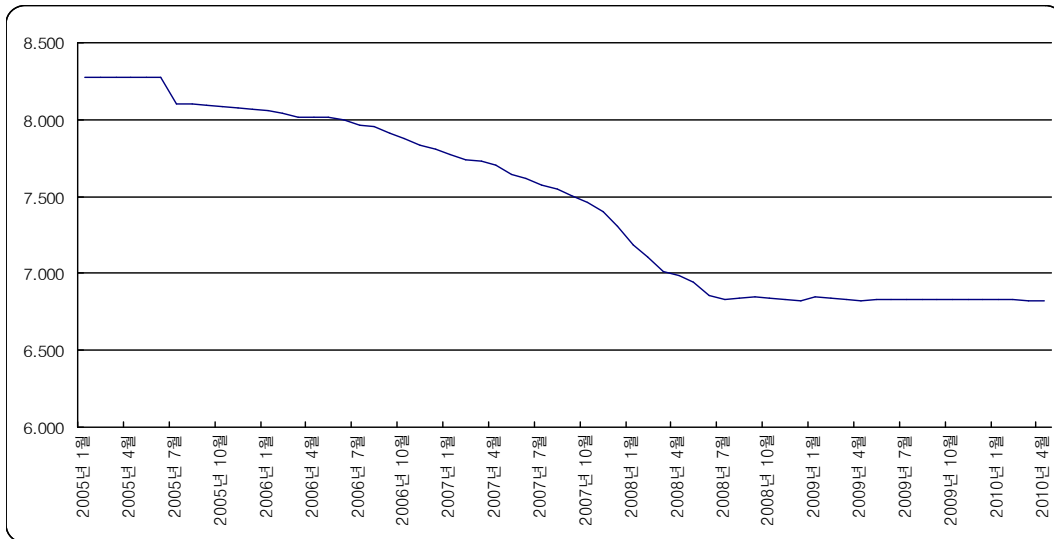
- 위안화 환율은 2008년 6월 이후로는 6.82위안 수준에서 사실상 고정됨.
- 미국은 최대 무역적자 대상국인 중국과의 무역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위안화 절상을 강도 높게 요구함.
- 특히 미 의회는 2010년 3월 오바마 행정부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정책을 불공정무역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상계관세조치로 제재해야 한다는 「환율조작 제재법안(Currency Exchange Rate Oversight Reform Act of 2010)」을 발의함.
- 이에 대해 중국은 외부압력에 의한 위안화 절상은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양국간 무역

불균형은 위안화 가치 저평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2010년 3월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위안화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위안화 절상은 중국경제의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힘.

그림 2. 위안화 환율 추이

(단위: 위안/1달러)



■ 통상분쟁 격화

- 2009년 들어 미국의 빈번한 대중 반덤핑 및 상계관세(이하 AD·CVD) 조치에 중국의 반발과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무역구제조치를 둘러싼 양국간 통상분쟁이 격화됨.
- 양국간 AD·CVD 분쟁은 타이어 분쟁(2009년 9월)을 계기로 철강, 자동차, 화학 및 제지, 닭고기 등으로 확산되면서 격화되어옴.
- 미국은 2009년 9월 11일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특별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였으며, 이에 반발하여 중국은 9월 13일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계획을 발표함(관련 조사는 9월 26부터 개시).
- 이를 계기로 양국은 여러 품목(철강, 자동차, 화학제품, 제지)에 걸쳐 첨예한 무역구제 분쟁을 겪게 됨.
- 양국간 무역구제 분쟁은 미국정부가 환율조작국 지정을 위한 상반기 보고서 발표를 미

루면서(2010년 4월 3일)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010년 4월 중 닭고기는 물론 철강, 알루미늄, 나일론 제품 등에서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주고받으며 더욱 거세짐.

표 4. 중·미 간 AD/CVD 분쟁 경과 주요 일지

	미국	중국
2009년	• 중국산 타이어 세이프가드조치 발동(9. 11) • 중국산 광택지 AD/CVD 조사 개시(10. 14) • 중국산 철강격자 CVD 예비판정(10. 27) • 중국산 유정용 강관 AD 예비판정(11. 5) • 중국산 유정용 강관 CVD 최종판정(11. 24) • 중국산 철강격자 AD 예비판정(12. 29) • 중국산 유정용 강관 CVD 산업피해 최종판정(12. 30)	• 미국 세이프가드조치 WTO 제소(9. 14) • 미국산 닭고기 AD/CVD 조사 개시(9. 26) • 미국산 아디프산 AD 최종판정(11. 1) • 미국산 승용차·SUV AD/CVD 조사 개시(11. 6) • 미국산 방향성 전기강관 AD/CVD 예비판정(12. 10)
2010년	• 중국산 와이어데킹 AD 예비판정(1. 21) • 중국산 드릴파이프 AD/CVD 조사 개시(1. 21) • 중국산 무계목 강관 CVD 예비판정(2. 24) • 중국산 포타슘인산염 및 광택지 CVD 예비판정(3. 2) • 중국산 유정용 강관 AD 최종판정(4. 9) • 중국산 알루미늄 사출 AD/CVD 조사 개시(4. 21)	• 미국산 닭고기 AD 예비판정(2. 5) • 미국의 일련의 AD/CVD 조치 비난성명 발표(3. 9) • 미국산 화학제품(Caprolactam) 및 광섬유 AD 조사 개시(4. 22) • 미국산 나일론제품(Polyamide6) AD 최종판정(4. 22) • 미국산 닭고기 제품에 CVD 예비판정(4. 28)

자료: 미 상무부 및 국제무역위원회(ITC); 중국 상무부; WTO 등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작성함.

- 양국간 AD/CVD 분쟁 격화의 배경으로는 미국의 대중 무역불균형 해소 의지 및 경기회복 촉진에 대한 압력 고조, 중국의 강력대응 등을 들 수 있음.
- 미국이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회복 촉진을 위해 최대 무역적자 대상국인 중국의 불공정무역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
- 중국은 미국이 처음으로 특별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고, AD·CVD 조치를 강화한 것에 대해 강한 반발과 보복 대응으로 맞섬.

4. 평가 및 시사점

- 이번에 열린 제2차 미·중 S&ED에서는 2009년의 제1차 대화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약속보다는 포괄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음.⁸⁾
- 전략 트랙에서는 수 건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총 26개 항목의 합의사항이 도출되었으나 대부분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국제안보, 반테러 등 분야에서 기존의 협력방향을 강화 및 재확인한 것임.
- 다만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았는데, 양측은 에코파트너십 실행계획 양해각서 체결 및 공동사무국 개설, 에너지 및 환경 협력 10개년계획 실행을 위한 우선협력분야 선정 등에 합의하였음.
- 전략 트랙 의제 중 최대 관심사였던 천안함사태 해결방안을 둘러싼 논의는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과 중국의 원칙론 고수 등 양측이 기존입장 확인에 그친 것으로 알려짐.
- 경제 트랙에서도 경제성장방식 전환과 구조조정, 개방적인 무역 및 투자 시스템 구축, 보호주의 배격, 금융시스템 건전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포괄적인 의제의 틀 내에서 양국간 현안 및 유럽재정위기와 같은 세계경제 현안에 관한 사안들이 논의되었으나, 민감한 이슈들은 보류 혹은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음.
- 위안화 환율 문제는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중국은 “국내경제 상황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점진적인 환율제도 개혁” 방침을 재천명하였고, 미국은 위안화 절상이 전적으로 중국 측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내보임.⁹⁾
- 중국 측은 이번에도 자국의 시장경제지위(MES) 인정 문제를 제기했으나, 미국은 여전히 확답하지 않았으며, 금후 미중상무공동위원회(JCCT)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¹⁰⁾

8) 이와 관련하여 워싱턴포스트지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대표단의 위상과 규모, 양국 정부가 부여하는 의미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중국의 관영언론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등 엇갈린 논조를 보이고 있음.

9) 후진타오 주석의 개막식 발언 및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의 폐막식 발언 참고. 한편 유로존 재정위기로 중국이 환율문제에 대해 더욱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게 됨으로써 설득 가능성이 희박한 점, 이란 및 천안함 사태 등과 관련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 등을 감안, 미국 측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음(Oxford Analytica, 2010. 5. 25).

10)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당시 최장 15년간 비시장경제지위를 감수하기로 했으나, 한국은 2005년 11월 인정했음. 전문가들은 미국이 2016년 전에 중국의 MES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미국은 경제 트랙의 핵심의제 중 하나로 중국의 자주혁신정책으로 인한 미국기업의 시장접근제한문제를 제기했으나, 중국 측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반응을 얻지는 못하였음.
- 중국은 2009년 11월 자국 내 기술혁신장려책의 일환으로 「자주혁신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 정부조달품 입찰 시 기술혁신제품으로 선정된 자국기업 제품에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외국기업들로부터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보호주의적 조치라는 비난을 받아왔음.¹¹⁾
- 중국은 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부여, 정부조달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에 노력한다는 데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약속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 성과와 실효성에 대한 엇갈린 평가에도 불구하고 S&ED가 내포하는 가장 큰 의의는 미·중 간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갈등을 포괄적인 틀 속에서 조율하여 안정적 양자관계를 유지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는 데 있음.¹²⁾
- 2010년 들어 미·중 관계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발표(1월)에 따른 양국간 군사교류 중단,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집견(2월), 인터넷 해킹을 둘러싼 중국정부와 구글(Google)사 간 긴장(1월), 무역분쟁 빈발 등 갈등이 지속되어왔음.
- 최근의 미·중 관계는 이미 체제나 가치관의 차이보다는 상대적 국력의 변화와 상호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 세계 경제 및 금융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위상 강화와 세계화 진전으로 미·중 간에 상호 취약성과 의존성이 증가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와 군사력 방면에서도 일방의 절대적 우위가 감소하고 있음.
- 다만 미국과 더불어 세계질서 재편을 주도하는 이른바 'G-2'로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양국관계는 미국이 주도할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음.¹³⁾

11) US-China Business Council(USCBC) 2010년 5월 25일자 보도자료 참고(USCBC 홈페이지).

12) Kenneth Liberthal은 고위급 정책대화채널로서 S&ED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S&ED가 양국관계 조율에 보다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제 발굴 및 운영방식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Kenneth Liberthal, "U.S.-China Talks Should Keep an Eye to the Future," *China Daily*, 2010년 5월 24일자).

13) 김흥규(2010. 4. 7), 「미·중 갈등과 북핵문제」, 외교안보연구원, 『주요 국제문제 분석』 참고. 한편 Deutsche Bank Research는 미·중 경제 및 금융 관계를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불균형한 상호 의존관계(asymmetric interdependence skewed in Washington's favour)'로 규정하고, 단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국의 미국시장 의존도가 낮아

- 금후로도 미국과 중국은 양국간 경제관계, 글로벌·지역 이슈 등을 둘러싸고 갈등과 균형, 협력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면서 이해관계를 조율해나갈 것이나 전반적인 협력 구도를 훼손시키는 대응은 자제할 것임.
- 경제적·전략적으로 양국 모두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주요 이슈에 대한 양국의 입장과 전략을 명확히 이해하고, 한국의 현실적 위상과 국익에 부합하는 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특히 천안함사태와 북핵문제, 위안화 절상 논의 등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상이하면서 우리의 국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전략적 고려에 바탕한 포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한·중 간에도 미·중 S&ED와 같은 고위급 대화채널을 가동시킬 필요가 있음.
- 한·중 간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비전을 공유하고, 양국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메커니즘 작동이 중요함.
- 한국과 EU는 2001년부터 공동위원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하여 양국간 현안을 조율하고 있음.
- 이러한 최고위급 대화채널의 정례화는 조만간 시작될 한·중 FTA 협상의 순조로운 진행과 성과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임. **KIEP**

지고 미국의 중국시장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이러한 힘의 균형은 역전될 수 있다고 분석함 (Deutsche Bank Research, Sino-US Relations, 2007. 5. 17).